

# ‘예비역’ 신용운 내년엔 부활투

3년 공백 만회… 2011시즌 재도약 다짐  
힘보다는 노련미 승부… 日 전훈서 맹훈

KIA 타이거즈의 예비역 투수 신용운이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2002년 프로에 뛰어든 신용운은 KIA에서 6시즌을 보내며 3.33의 방어율과 33승21패 22세이브의 기록을 남겼다.

마운드의 웃은 일을 도맡으며 ‘눈물의 역부’를 해야했던 신용운은 지난 2007년 입대를 선택했다. 그리고 올 시즌 꿈에도 그리던 그리운데 돌 아왔다.

후배 손영민에게 물려줬던 19번을 다시 등에 달고 마운드 복귀를 그렸지만 간절한 바람과 달리 단 한 차례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어깨 부상이 문제였다. 제대에 앞서 웃자란 팔꿈치 뼈를 깎는 수술을 받았던 신용운은 어깨 부상으로 다시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신용운은 “입대 전 팔꿈치 부상때문에 고전했었는데 올 시즌 예상치 못하던 어깨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8월 이후 몸상태가 좋아졌지만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2011시즌을 염두에 두고 재활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부상에서 벗어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신용운은 24일까지 일본 마무리 캠프에서 제구력 보강과 투구 밸런스 잡기에 역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운은 “군입대와 팔꿈치 수술 등으로 최근 3년간 많은 공을 뿌리지 못해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남해 캠프부터 투구수를 늘려왔다”며 “일본으로 자리옮김 뒤 100% 전력으로 피칭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훈련 상황을 설명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투구폼 변화도 감행했다. 스리쿼터에 가까운 피칭을 했던 사이드암 신용운은 예전에 비해 팔 각도를 약간 내렸다.

힘보다는 노련미를 가미한 투구를 하면서 어깨

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변화다.

신용운은 “최근 3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야구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2011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떼와 함께 사이클 경주

지난 7월 22일 파우에서 투어머켓까지 달리는 트루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17번째 구간에서 선수들이 양떼와 함께 달리고 있다. 로이터가 선정한 2010 올해의 사진. /연합사진

## 암흑 속의 바둑대결

### 한·일 시각장애인 고수들 대국 화제

‘수담(手談)’은 바둑의 별칭이다.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뜻으로 ‘바둑을 두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상대방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시각장애인 바둑 고수가 ‘어둠 속의 수담(手談)’을 펼쳐 화제다. 시각장애인 바둑 세계챔피언인 한국의 송중태 아마6단과 일본 고수 가키시마 미즈하루 아마3단은 지난 28일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대국을 펼쳤다. ‘16개 시도대항 장애인바둑대회’ 축하 기념으로 열린 이날 대국에서 석집점을 접어준 송중태 6단이 불거승했지만 승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바둑 가고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송중태(51) 아마6단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바둑대회에 한국 대표로 8년째 참가해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세계챔피언이다.

‘바둑귀신’이라는 프로기사도 바둑판을 보지 않으면 100수 이상 넘기기 어렵다고 하지만 송6단은 계가 까지 마친다. 실제로 1995년 바둑TV가 기념으로 목진석 9단이 눈을 가지고 동료 프로기사들 상대로 대국을 벌인 적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판은 일반바둑판과는 다르다. 가로와 세로줄이 뒤어나와 있고 바둑알 위에는 십자로 흙이 퍼져 원하는 자리에 바둑알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 위에는 불록한 점이 뛰어나와 있어 흰 바둑알과 구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77년생인 가키시마 미즈하루 3단은 20살에 시력을 잃었지만, 7년 전에 바둑을 처음 접하고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 현재 장애인 바둑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 내 고수 중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바둑